

OB/SCHNITZ

Festival

2022

10.30

11.20

		10.30	10.3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	마텐 스팅베르크 강독대화 - 그런 코트를 입고 나타난	갤러리 기체	15:00	19:00						19:00													
2	마텐 스팅베르크 나는 이들 중 하나를 숨긴다	일민미술관												19:30									
3	마텐 스팅베르크 게시판에 숨겨진	온라인: 옴/신 페스티벌 웹사이트																					
4	김보웅 암실	옴/신 스페이스		18:00	19:00	20:00																	
5	호루이안 인민 없는 경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19:30																		
7	보슈라 위즈겐 엘리펀트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20:00	14:00															
8	마리아 하사비 투게더	일민미술관					16:00	17:00															
9	김수화 메타 헨즈	문래예술공장 갤러리M30								19:30													
10	김지선 슬픔의 집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8:00											
11	김지선 역행의 여행사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20:00											
12	임고은 세 개의 고래 - 인간 등그라미 ●	옴/신 스페이스											11:00-21:00 (16:00 휴식)	11:00-15:00									
13	토시키 오카다 뉴 일루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19:30	14:00	11:00	11:00							
													16:30	14:00	14:00								
													19:30	17:00	17:00								
														20:00									
14	이영준 바다라는 평행우주	옴/신 스페이스															19:30						
15	에릭 보들레르 써야 할 곡이 없을 때, 그리고 다른 로마 이야기들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9:30					
16	서현석 레스 폴레스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9:30					
17	워킹아하 라산시티, 알스트로메리아, 아수아 형성기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19:30	16:00		
18	메테 에드바센 블랙 & 무제	김희수아트센터 SPACE 1																				15:00	
19	더블럭키 프로덕션 트루 유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9:30	18:00
20	재커리 폴왈트 산업, 그리고 그 대체 불가능한 매체들 / 자본의 자리 / 아크에 비추어	갤러리 기체																					
6	호루이안 라이닝 / 학생의 몸	갤러리 기체																					
21	티노 세갈·필립 파레노 앤 리	에스터 쉬퍼 서울				12:00-18:00		휴관				12:00-18:00					휴관				12:00-18:00		
22	와엘 샤키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III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6:00								
23	월정명 (work in progress) ●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6:00								
24	더블럭키 프로덕션 <튀영긴 데이터들의 정원> 산책 ●	세운홀																				12:00-19:00	
*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진동새와 손편지	아트선재센터 / 예술청											12:00-19:00									12:00-19:00	
*	시비촌 2.0 미래 공동체를 생각하는 포럼 시리즈 ●	세운홀																				10:00-21:00	

장(scene)으로부터 / 벗어나다(ob)

옴/신 페스티벌은 매년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동시대 예술 축제다. 옴/신 페스티벌은 오늘날 예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본다. 한때 예술이 약속했던 변화의 가능성이 무력해지고 있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정치적 힘, 경제적 논리, 미학적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어 우리를 또 다른 비전으로 이끄는 예술가들의 장이다.

Ob/Scene festival makes scenes out of the scene. Ob/Scene Festival is a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 that takes place all across Seoul in autumn every year. Ob/Scene Festival questions the role of art in today's society. In times when the changes art once promised seem ever more distant, the festival persists to ask what it is that art can do nonetheless. Ob/Scene Festival is an arena for artists who stubbornly raise their voices undeterred by political pressure, economic logic, and aesthetic convention, thereby leading us to a new vision.

● <당신이 살고 싶은> 프로젝트를 위해 옴/신이 위촉, 초청한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아코 공공예술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해당일에 작가와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독 대화—

그런 코트를 입고 나타난

이번 읍/신 페스티벌에서 마텐 스펡베르크는 이론과 춤, 실제 삶의 사례와 개인적인 일화를 재조합하며 작년 축제에서 시작된 [강독대화]의 여정을 이어간다. 이 대화는 강의가 아닌 즉흥 이기에 한 점에서 출발하여 사망으로 자란다. 안내나 설명이 아니라 변형을 거듭하며 계속 뻗어가는, 반짝이는 표면에 반사되는 빛과 같은 것이다. 원근법의 정교함을 무화하는 지평이며, 무엇을 배우기보다 어딘가에 가닿게 되는 시간이다. 해변에 앉아 바다로 가라앉는 태양을 바라볼 때처럼, 이미지로 응고되지 않은 인상을 마주하는 경험이다. 포획되기를 거부하는 흐름이다. 이 대화는 마텐 스펡베르크의 작업이 다루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 동시에 다루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 Courtesy of the artist

갤러리 기체

10.30 일 15:00/10.31 월 19:00/11.7 월 19:00

무료/120분/영어, 한국어 통역/대화 시리즈

Riverbank Sessions: Showing Up In Such A Coat

For this year's festival Mårten Spångberg will continue the journey embarked on in the previous edition of Ob/scene, remixing theory with dance, life size examples with personal anecdotes. These talks are not lectures but improvisations, taking off from the middle growing in all directions. They are not guides or explanations but instead reflections in the sense of light bouncing on a shiny surface, continuing although slightly transformed. They are horizons that aim at undoing the elaboration of perspectives, they are something you reach from rather than learn from. They are like moments sitting on the beach experiencing the sun sink into the ocean, they are impressions that forget to become images. Flows that withdraw from being captured.

The aim of these sessions is to shed light on, indeed to explain what Mårten Spångberg's work is about, if they are about something and if so what they are not about.

제안: 마텐 스팅베르크

협력: 갤러리 기체

A proposal by Mårten Spångberg

In cooperation with KICHE

KICHE

Oct 30 Sun 15:00 / Oct 31 Mon 19:00 / Nov 7 Mon 19:00

Free / 120 min / English, Korean translation / a series of conversations

나는 이들 중 하나를 숨긴다

이번 신작에서 스웨덴 안무가 마텐 스펡베르크는 반사, 그림자, 중첩을 다루며 그 흐릿하면서도 역동적인 장 위에서 무용과 이미지 생산의 관계를 탐구한다. 세 명의 퍼포머, 두 명의 어시스턴트와 함께 모든 것이 춤을 추는 공간을 만든다. 이 공간 위에서 사물의 윤곽이 흐려지고 모든 형체가 암류(暗流) 속으로 떠내려가 사라지는 풍경이 펼쳐진다. 이제 정교한 안무적 언어는 비틀린, 불안정한, 때로는 해학적인 연결들을 통해 인간과 기계, 몸과 기술, 표현과 우주가 하나 되는 감각으로 전환된다.

마텐 스펡베르크의 작품은 관객 각각의 머릿속에 숨겨진 영역들에 침투하여 지각의 영혼을 열어젖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신의 형태들을 소환한다.

움/신 페스티벌 2021에서 「웁닝엔」을 선보인 이후 새롭게 제작될 「나는 이들 중 하나를 숨긴다」는 오늘날 감각이 분할된 방식과 공명하듯, 전작에 비해 보다 파편적인 드라마투르기를 실험한다. 동시에, 작품은 인터넷과 인공지능 소통이 제시하는 주의력의 양태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다.



© Courtesy of the artist

일민미술관

11.10 목 / 11.11 금 / 11.12 토 / 11.13 일 19:30

40,000원 / 95분 / 한국어 / 무용

I'm Hiding One Of These

The Swedish choreographer Mårten Spångberg is in this dance, for three women and two assistants, exploring relations between dance and image production, through the vague and vibrant realm of reflection, shadows and superimposition. It establishes a space where everything dances, forming landscapes where contours fade and shapes vanish into trembling undercurrents.

The precise choreographic language is here turning into textures where humans and machines, bodies and technology, expression and the universe come together through twisted and unstable, sometimes humorous, connections.

Mårten Spångberg's work enters the hidden realms of the individual audience member's mind, opens doors to the soul of perception and calls for unknown forms of metamorphoses.

After the success of [Skymningen] presented by Ob/scene Festival in 2021, [I'm Hiding One Of These] ventures into a more fragmented dramaturgy that resonate with contemporary modalities of distribution of the sense, at the same time as it poses a critique to modes of attention proposed by internet and AI communication.

제안: 마텐 스팅베르크

함께: 김신우, 박진영, 박한희, 이민진

이 공연은 NPN Stepping Out와 Fond Darstellende Kunste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협력: 일민미술관

A proposal by Mårten Spångberg

With and by Park Jinyoung, Lee Minjin, Park Hany, Kim Shinu

Made possible through the support of NPN Stepping Out and Fond Darstellende Kunste

In corporation with Ilmin Museum of Art

게시판에 숨겨진

옴/신 페스티벌이 위촉한 공연 「나는 이들 중 하나를 숨긴다」의 일환으로 공연 전 페스티벌 웹페이지에 소설 한 편이 게시된다. 소설은 공연이 놓이게 될 풍경을 미리 열고, 동시에 공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노트로 작동할 것이다. 물론 공연 이후에 읽어도 무방하다. 관객은 결말로서의 공연이 아닌 소설의 형식을 춤과 안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각자의 개인적인 서사를 더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없는 소설은 과연 소설일까? 아니면 그 자체로 이미 무언가 다른 것, 이를테면 환경이나 리듬, 혹은 감각이 될 수 있을까?



© Courtesy of the artist

Hidden In The Dashboard

Part of Mårten Spångberg's performance [I'm Hiding One Of These] commissioned by the festival is a novel that will be published on the festival's webpage before the premiere. The novel unfolds a landscape within which the performance is taking place, and is at the same time the program note for the piece, which of course can be enjoyed afterwards.

The interest is not to tell a story where the performance becomes the last chapter, the resolution but instead to approach the format novel from the perspective of dance and choreography, and as we know dance doesn't tell stories but is rather something one experiences adding one's personal narratives to what is talking-place. At the same time, a novel without a story is that a novel, or is it already something else, an environment, a rhythm or a sen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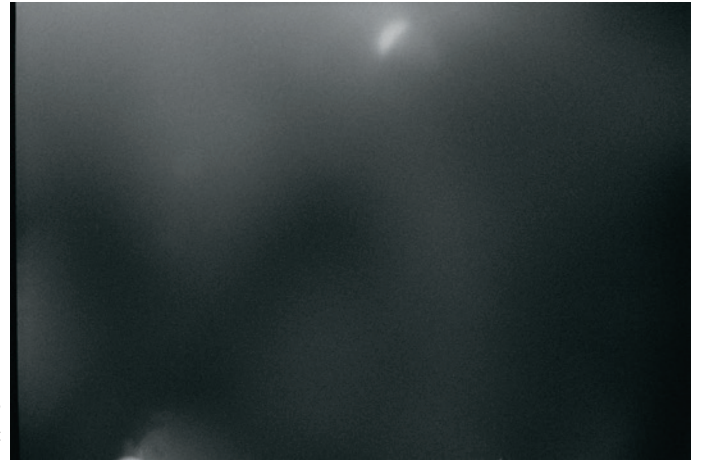
제안: 마텐 스팅베르크

A proposal by Mårten Spångberg

암실

「암실」은 신체라는 어두운 공간 속에 머물며 아주 조금씩 감각을 열어 세계를 현상해보는 어느 관찰자의 이야기다. 그는 세계로부터 눈을 감고, 모든 감각의 문을 닫은 채, 신체라는 암실 속에 고립하여 곧 재현될 세계의 모습을 기다리고, 숙고한다. 그곳은 현실이라는 감각이 생산되는 장으로서의 신체, 통제 불가능한 이미지가 인출되는 공간, 과거-현재-미래가 뒤엉키는 지금 여기이자,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장소다.

이 작업에서 관객의 내면은 무대가 된다. 그 어둠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본다.



© 2013

움/신 스페이스(서촌공간 서로)

10.31 월 / 11.1 화 / 11.2 수 18:00, 19:00, 20:00

20,000원 / 45분 / 한국어 / 영상·사운드 설치

Obscura

[Obscura] is about an observer who stays in a dark space, developing an image of this world by opening one's senses little by little. The protagonist keeps his eyes shut from the world, keeps all doors to his senses closed, and remains isolated in the darkroom called the body. He awaits and contemplates the world that will arise in the realm of representation. This darkroom is where the sense of reality is produced, where images are created out of one's control; it is the space of 'here and now', but where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are entangled, a space of darkness and silence where all of this crumble down.

This work takes the inner world of the audience as its stage. Deep inside one's inner self, where things arise, linger, crumble, and disappear, a fierce storm rages.

연출: 김보용

목소리: 김하연

녹음·사운드: 안상영

Direction: Kim Boyong

Voice: Kim Hayon

Recording/Sound: Ahn Sang-young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작품은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 공연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Sponsored by Arts Council Korea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2 Private Theatre

Revitalization Program of Arts Council Korea.

Ob/Scene Space (Seochon Space Seoro)

Oct 31 Mon / Nov 1 Tue / Nov 2 Wed 18:00, 19:00, 20:00

20,000 KRW / 45 min / Korean / video and sound installation

인민 없는 경제

호루이안은 동시대 미술, 영화, 퍼포먼스, 예술 이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싱가포르 작가다. 렉처, 에세이, 필름 등의 매체를 통해 이미지가 생산, 유통, 소멸하는 방식과 권력의 관계를 탐구한다.

「인민 없는 경제」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포스트 사회주의로 전환될 무렵 시작된 중국과 싱가포르의 역사를 살피며 후기 자본주의의 위기를 되짚는다. 1970년대 후반, 중국 정부는 싱가포르의 경제와 정책 연구를 위해 수천의 관료를 싱가포르에 파견한다. 경제가 계급 투쟁을 대체하던 시기에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중국의 향후 정치적 상상력을 재편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이 작업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중국 경제의 호황에 따라 부패의 문제가 재조명되며 중국이 싱가포르의 통치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살핀다.



© Courtesy of the artist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11.2 수 / 11.3 목 19:30

30,000원 / 80분 / 영어, 한국어 자막 / 렉처 퍼포먼스

The Economy Enters the People

Ho Rui An is an artist and writer working in the intersections of contemporary art, cinema, performance and theory. Working primarily across the mediums of lecture, essay and film, he probes into the ways by which images are produced, circulate and disappear within contexts of the global power structur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present-day crisis of late capitalism, [The Economy Enters the People] re-examines the history of encounters between Singapore and China that emerged when China launched its economic reforms and embraced the market economy. Since the late 1970s, the Chinese government has dispatched thousands of officials to Singapore to study its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The city-state was crucial in reshaping the political imagination of an entire generation of Chinese leadership in a time when “the economy” had replaced class struggle as the primary subject of governance. With corruption having returned as a subject of political discourse follow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hina’s economic rise, this work examines how China drew upon Singapore’s experiences in governance.

Co-commissioned by Asia Culture Center, Gwangju;
and Singapore Art Museum
Co-produced by Bangkok CityCity Gallery;
Haus der Kulturen der Welt, Berlin; and Kunsthalle Wien
Written, performed & edited by Ho Rui An
Production & technical management: Yap Seok Hui | ARTFACTORY

텍스트 번역 및 자막 오퍼레이팅: 이준영
공동 기획: 옴/신 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Translation & subtitle operating by Junyoung Lee
Co-presented by Ob/Scene Festival, SFAC theater QUAD

SFAC theater QUAD

Nov 2 Wed / Nov 3 Thu 19:30

30,000 KRW / 80 min / English, Korean Subtitle / lecture performance

라이닝

학생의 몸

이번 페스티벌에서 호루이안은 레저 퍼포먼스 「인민 없는 경제」와 더불어 두 개의 영상 작품 「라이닝」, 「학생의 몸」을 선보인다.

「라이닝」은 중화권 섬유 산업의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다룬 영화 3부작 중 하나다. 이 작품은 공산주의 집권 이전 홍콩으로 이주한 상하이의 면직 공장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경제 개혁 시기를 거쳐 홍콩의 산업 기반이 다시 중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또한 중국의 경제 개혁 이전부터 존재했던 홍콩과 중국 본토의 물류 교류망을 추적하고, 산업의 중심지에서 금융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홍콩을 그린다.

「학생의 몸」은 학생이라는 형상을 통해 아시아의 자본주의적 근대화 역사에 접근한다. 호루이안은 ‘학생’을 ‘기적적인’ 발전과 위기, 회복의 시기를 연이어 겪어 온 아시아의 ‘몸 정치’를 대변하는 존재로 상징한다. 정치학자 차머스 준슨은 전후 일본을 미국이 보는 ‘자본주의 최고의 모범생’이라 표현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이 학생은 길거리에 쓰러진 시위 학생의 시체로 변해 있다. 학생의 몸은 아시아의 매 역사적 변곡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하며 통념적인 역사 분석 방식을 전복한다.

갤러리 기체

11.15 화-11.20 일 12:00-18:00

5,000원*/26분(「라이닝」), 26분 30초(「학생의 몸」)/영상

* 전시 입장권: 재커리 폴왈트 + 호루이안



© Courtesy of the artist

Lining Student Bodies

At Ob/Scene Festival, Ho Rui An introduces two films [Lining and Student Bodies] along with the lecture performance [The Economy Enters the People].

[Lining] begins with the movement of Shanghai's cotton mills to Hong Kong on the eve of the Communist takeover and extends into the Reform era during which Hong Kong's industrial base would in turn be displaced to the mainland. The work traces the material networks that connected Hong Kong to the mainland long before the official launch of China's economic reform; it also depicts the transformation of Hong Kong from an industrial to a financial hub.

[Student Bodies] approaches the fraught history of capitalist modernity in Asia through the figure of the student body. Ho Rui An considers the student body as a figure that stands in for the body politic of the region across the successive periods of 'miraculous' development, crises and recoveries through to the present day. The 'star capitalist pupil' of the United States, as Chalmers Johnson said of Japan in the postwar period, becomes in the next moment, the dead student protester on the streets. At every historical turn, the student body incarnates as a different form, exploding established analytical frameworks based on class, culture, or the nation-state.

KICHE

Nov 15 Tue–20 Sun 12:00–18:00

5,000 won*/26 min [Lining], 26 min 30 sec [Student Bodies]/film

* All-in-One Exhibition Admission: Ho Rui An + Zachary Formwalt

[Lining]

Co-commissioned by CHAT (Centre for Heritage, Arts and Textile), Hong Kong; Guangdong Times Museum Media Lab, Guangzhou; and PinchukArtCentre, Kiev

Concept, direction & edit: Ho Rui An

Sound: Zai Tang

[Student Bodies]

Commissioned by Asian Film Archive, Singapore

Concept, direction & edit: Ho Rui An

Sound: Zai Tang

엘리펀트

안무가 보슈라 위즈겐은 모로코 마라케시의 가장 오래된 카바레에서 일하는 ‘아이타’ 가수들과 함께 전 작품 [마담 플라자]를 만든 바 있다. 아이타 가수는 삶의 쾌락과 고통을 음악적으로, 시적으로 번역해온 모로코 전통 명인으로 종종 일본의 게이샤와 비교되기도 한다. 위즈겐은 모로코 사회의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 명인을 향한 존경과 성적 대상으로 배척된 여성 신체에 대한 이중적 시선을 대면하며 그들에게 오마주를 바친다.

신작 [엘리펀트]는 그 고민의 연장선을 그리며 아이타 가수들과 위즈겐이 함께 무대를 구성한다. 10년 뒤에는 멸종될지 모를 코끼리처럼, 무대 위 네 명의 신체는 힘과 연약함 사이에서 흔들리며 사라질 위기에 놓인 무언가를 무대 위로 떠올린다. 보슈라 위즈겐은 모로코 지방에서 구전되고 전수되어 온 형식을 기반으로 목소리와 타악기가 공존하는 콘서트 형식의 매혹적인 안무를 만들어낸다. [엘리펀트]는 사라지는 것들 앞에서 어떻게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11.5 토 20:00 / 11.6 일 14:00
40,000원 / 60분 / 모로코어 / 무용



© Moulay Youssef Elkahitai, Compagnie O

Elephant

In [Madame Plaza], choreographer Bouchra Ouizguen shared the stage with Aïta singers, who have been working in the oldest cabarets of Marrakech, Morocco. As traditional masters often compared to Japanese geisha, these vocalists have translated the pleasures and pains of life into music and poetry. Ouizguen pays homage to these artists while confronting the ambivalent gaze towards them, where respect for virtuosos coexists with disdain for their erotic overtone.

Ouizguen's newest creation [Elephant] is an extension of the choreographer's ongoing contemplation, in which she constructs the stage once more with Aïta singers. Like the elephant, which could be mostly extinct by the end of the next decade, the collective body brought forth by the movements of four dancers on stage oscillates between strength and fragility, creating something that is continuously on the verge of disappearing. Taking the artistic form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e Moroccan region, Ouizguen constructs a fascinating choreography in the form of a concert, where the movements coexist with voices and drums. Ultimately, [Elephant] shares with us the question of how to keep hope in the face of the disappearance of things.

Artistic direction: Bouchra Ouizguen

Dancers and singers: Milouda El Maataoui, Bouchra

Ouizguen, Halima Sahmoud, Joséphine Tilloy

Light scenography: Sylvie Mélis

Sound management: Chloé Barbe

Production, Administration: Mylène Gaillon

Production: Compagnie O

Supported by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ew Settings Program

Coproduction: Kunstenfestivaldesarts, Festival Montpellier Danse, Festival

d'Automne à Paris, Les Spectacles vivants–Centre Pompidou, Wiener

Festwochen, AFAC (Arab Fund for Art and Culture), HAU Hebbel am

Ufer (Berlin), ERT Emilia Romagna Teatro (Italy), Kampnagel, Service de

Coopération et d'Action Culturelle de l'Ambassade de France au Maroc.

Funded by Cultural Foundation–Abu Dhabi

공동 기획: 옴/신 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Co-presented by Ob/Scene Festival, SFAC theater QUAD

SFAC theater QUAD

Nov 5 Sat 20:00 / Nov 6 Sun 14:00

40,000 KRW / 60 min / Moroccan / dance

투게더

2000년대 초부터 마리아 하사비는 살아있는 몸이 정지된 이미지 및 조각적 사물과 맺는 관계에 기반한 그만의 실천을 선보여 왔다. 정지됨과 느린 속도에 초점을 맞춘 그의 작품은 시간과 인간 형체라는 주제를 다룬다. 듀엣 퍼포먼스 「투게더」는 하사비와 댄서 오이신 모나간의 밀착된, 그러나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이뤄진 함께함의 이미지를 연상케한다. 두 신체와 공간이 맞닿고, 포개지며 함께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강력한 명상적 안무가 만들어진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또 옆에 사는 법에 대한 대담이다.

“「투게더」는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묻는다. 두 몸의 끊임없는 접촉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난다. 불과 불, 머리와 머리, 이마와 이마, 코와 코, 입과 입이 마주하며 고립된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움은 아포칼립스의 전조에 놓인 우리의 혼돈을 잠재운다.”



© Courtesy of Thomas Poravas

일민미술관

11.5 토 16:00, 19:00 / 11.6 일 17:00

30,000원 / 53분 / 퍼포먼스

TOGETHER

Since the early 2000s Maria Hassabi has carved a unique practice based on the relation of the live body to the still image and to the sculptural object. Concentrated on stillness and deceleration, her works reflect on concepts of time and the humanfigure. With minimal movements, [TOGETHER], an intimate duet between herself and dancer Oisín Monaghan, evokes images of togetherness. The two of them move at the limits of perception, folding the surrounding space against the contours of the body. [TOGETHER] proposes a forceful choreographic meditation on methods of affecting and being affected by each other; on ways of living with and next to another.

“Together has a simple title for a complicated question: how to be together? The contact between the two bodies, like a spark, occurs: cheek to cheek, head to head, forehead to forehead, then nose to nose, and almost mouth to mouth, the infinite tenderness of this desert couple tries to calm the panic pre-apocalyptic.”

Performer: Maria Hassabi, Oisín Monaghan

Sound Design: Stavros Gasparatos, Maria Hassabi

Outfits: Victoria Bartlett

[TOGETHER](2019) was commissioned by the Pulitzer Arts Foundation, St. Louis, and supported by “Extended Life,” a program of the Lower Manhattan Council of the Arts. [TOGETHER] was developed through a residency at FLOOR, NYC.

공동 기획: 옴/신 페스티벌, 일민미술관

Co-presented by Ob/Scene Festival, Ilmin Museum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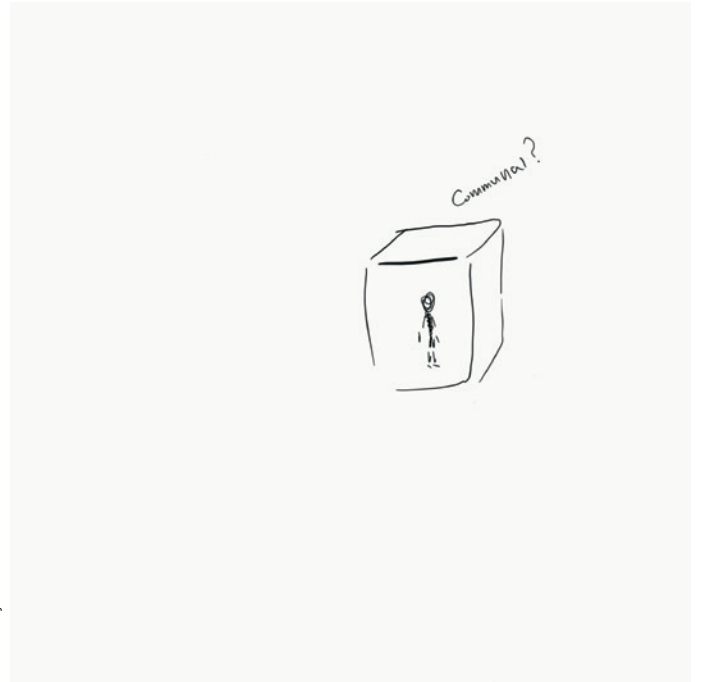
Ilmin Museum of Art

Nov 5 Sat 16:00, 19:00 / Nov 6 Sun 17:00

30,000 won / 53 min / performance

메타 헨즈

김수화는 몸과 기술 매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성을 탐구하며 퍼포머이자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다. 「메타 헨즈」는 VR 속 가상과 현실의 공간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안무가의 신체를 다루며, 우리의 감각이 가상과 현실의 편제된 공간 속으로 흡어질 때, 지금 여기, 무대 위의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한다.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 속에서 무엇을 공통의 기억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러한 불확정성에서 유동하는 신체를 과거와 같은 중으로서 사유할 수 있을까? 작가는 VR 기계를 매개로 가상과 신체의 부조화와 불완전한 동기화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손을 잡기 위해 시도한다.



© Courtesy of the artist

문래예술공장 갤러리 M30

11.7 월 / 11.8 화 19:30

20,000원 / 60분 / 한국어 / VR 퍼포먼스

Metahands

Kim Suhwa is a performer and choreographer who explores the corporeality that arises between the body and technological media. [Metahands] deals with the choreographer's body wavering between the virtual space in VR and the space in reality. The work questions how the "here and now" or the community on the stage can exist, when our senses are scattered to spaces spread out across the virtual and the real. From these myriads of senses and experiences, what could be considered the "common memory"? Can we consider the contemporary human body that fluctuates around this uncertainty to belong to the same species of the past? While welcoming the incongruity and the incomplete synchronization between the virtual and the physical body in the VR medium, the artist continues to strive to conjoin the two on the other.

연출, 출연: 김수화

공동창작: Lin Jye-Hwei

공간, VR 디자인: 시현수

영상송출, 조명, 사운드 디자인: 신혜린

프로젝트매니지먼트: 김윤아

이 작품은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Direction, Performance: Kim Suhwa

Co-creation: Jye-Hwei Lin

Stage & VR design: Si Hyunsoo

Light, Projection Mapping & Sound design: Shin Hyerin

Project management: Kim YoonA

This work was published with the support of [2022 ARKO Art & Tech].

Seoul Art Space Mullaee M30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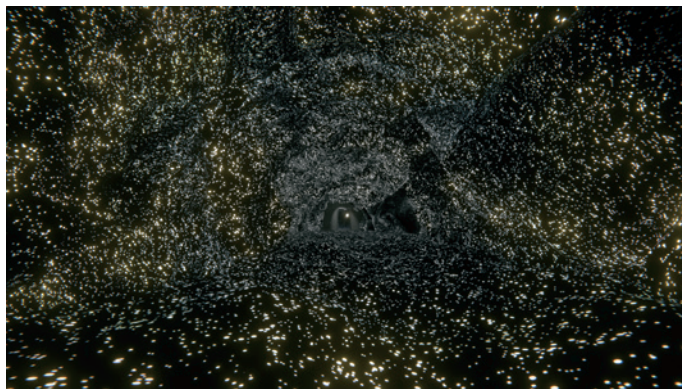
Nov 7 Mon / Nov 8 Tue 19:30

20,000 won / 60 min / Korean / VR performance

슬픔의 집

김지선은 사회 시스템의 경계와 균열을 탐색하고 나와 세계를 감각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며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역행의 여행자」, 「슬픔의 집」은 지난 옴/신 페스티벌에서 발표한 작품을 재제작한 것으로 게임과 웹 같은 가상 공간을 경유하여 비/물리적 공간 감각에 질문하고, 사유라는 시스템 자체를 사유한다.

「슬픔의 집」은 작가가 남미 여행 중 아마존에서 만난 ‘민’으로부터 정체 모를 USB를 건네받으며 시작된다. 그곳엔 민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게임이 담겨있었고, 작가는 그 게임을 플레이하며 민이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추적한다. 작가는 민이 만든 원본 게임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수정해 「슬픔의 집」이란 게임을 만들고 관객을 초대한다.



김지선 ©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1.9 수 / 11.10 목 18:00

20,000원* / 70분 / 한국어·영어 / 퍼포먼스

* 「슬픔의 집」+ 「역행의 여행자」 패키지: 30,000원

The House of Sorrow

Kim Jisun is a performance artist who has been exploring the vague borders and cracks of the social system and questioned the possibility of sensing the self and world. This year's Ob/Scene Festival introduces her two works: 「Off Tours」 and 「The House of Sorrow」. Both works travel through virtual spaces like the gaming world or the web, to question the sensations of a non/physical space, and to think about the very system of thought.

「The House of Sorrow」 begins with a trip that the artist went on to the Amazon, where Kim Jisun met a man named Min, who handed her a mysterious USB stick containing various games that are suspected to be his own creations. Kim plays these games to trace what it was that Min wanted to see. By adding her thoughts and revising the original, Kim has created a new version of the game, entitling it 「The House of Sorrow」, to which she invites the audience.

컨셉·연출: 김지선

조연출: 강윤지

게임 개발: 권오준, 문기강, 박두현

일러스트레이션: 오채원

기술감독: 김지명

영문 번역: 강윤진

출연: 윤은경

공동제작: 쿤스텐페스티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기획: 옴/신 페스티벌, 아트선재센터

Conception and direction: Kim Jisun

Assistant director: Yoonzee Kang

Technical director: Jimmy Kim

Game development: Doohyun Park, Gigang Moon, Ojun Kwon

Illustration: Chaewon Oh

English translation - Yoonzin Kang

Performer: Eunkeong Yun

Co-production: Kunstenfestivaldesarts

Sponsor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rts Council Korea

Co-presented by Ob/Scene Festival, Art Sonje Center

Art Sonje Center Art Hall

Nov 9 Wed / Nov 10 Thu 18:00

20,000 won* / 70 min / Korean and English / performance

* 「The House of Sorrow」 + 「Off Tours」 Package: 30,000 KRW

역행의 여행사

김지선은 사회 시스템의 경계와 균열을 탐색하고 나와 세계를 감각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며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역행의 여행사」, 「슬픔의 집」은 게임과 웹 같은 가상 공간을 경유하여 비/물리적 공간 감각에 질문하고, 사유라는 시스템 자체를 사유한다.

「역행의 여행사」는 관광버스를 타고 지역의 문화, 역사적 장소를 둘러보는 패키지여행을 웹-장소(web-site) 투어의 형식으로 옮겨 온다. 참여자는 수십 개의 웹사이트를 이동하며 웹 풍경 너머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움직임, 역사를 바라보며 시공간 감각에 대해 질문한다.



© 지승도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1.9 수 / 11.10 목 20:00

20,000원* / 60분 / 한국어, 영어 자막 / 웹사이트 투어

* 「슬픔의 집」+ 「역행의 여행사」 패키지: 30,000원

Off Tours

Kim Jisun is a performance artist who has been exploring the vague borders and cracks of the social system and questioned the possibility of sensing the self and world. . This year's Ob/Scene Festival introduces her two works: [Off Tours] and [The House of Sorrow]. Both works travel through virtual spaces like the gaming world or the web, to question the sensations of a non/physical space, and to think about the very system of thought.

In [Off Tours], Kim Jisun transplants the experience of a package tour into the form of a website tour. The audience will travel to numerous websites, looking at their history, data, and movements; these encounters will lead them to question their spatiotemporal senses.

컨셉·연출: 김지선

프로그램 개발: 주식회사 더뉴피쳐

리서치 보조·기술 진행: 강윤지

여행 프로그램 자문: 임지혜

기술 감독: 김지명

웹사이트 제작: 민구홍 매뉴팩처링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21년 코로나19 예술지원 ART MUST GO ON 선정작

공동기획: 음/신 페스티벌, 아트선재센터

Conception and direction: Kim Jisun

Assistant director/Tour program performer: Kang Yoonzee

Computer program development: The New Feature

Tour program advisor: Lim Jihye

Technical director: Jimmy Kim

Homepage production: Min Guhong Manufacturing

Sponsored by Arts Council Kore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lected for 2021 [ART MUST GO ON]—arts support program for Covid-19

Co-presented by Ob/Scene Festival, Art Sonje Center

Art Sonje Center Art Hall

Nov 9 Wed / Nov 10 Thu 20:00

20,000 won* / 60 min / Korean, English subtitle / website tour

* [The House of Sorrow] + [Off Tours] Package: 30,000 KRW

세 개의 고래—인간 동그라미

임고은은 국내외 영화제와 전시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영상 작가다. 그는 영화를 둘러싼 시선의 주체와 객체, 과거와 현재, 진실과 허구의 변증법적 관계의 유연함을 탐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적인 언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몰두하고 있다. 「세 개의 고래—인간 동그라미」는 작년 옴/신 페스티벌에서 발표한 「아키텔라고 맵」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재구성한 작업이다.

우리는 다른 존재의 삶과 죽음이 전하는 기호를 얼마나 감각하고 사유하며 이에 반응하고 있을까? 그들과 맺어왔던 우리의 폐쇄적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열어 놓을 수 있을까? 경계를 흐리거나 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긴장을 유지하며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을 찾기 위해 비움과 채움이 만나는 작은 동그라미 속으로 고래와 인간의 시간이 잠수한다.

옴/신 스페이스(서촌공간 서로)

11.10 목-11.12 토 11:00/12:00/13:00/14:00/15:00

/17:00/18:00/19:00/20:00/21:00 (16:00 휴식)

11.13 일 11:00/12:00/13:00/14:00/15:00

10,000원/50분/영어, 한국어 자막/영상 퍼포먼스



© Courtesy of the artist

Three Circles with(in) the Whale

Im Go-Eun is an artist and filmmaker who presented her works at various film festivals and exhibitions in Korea and abroad. She has taken a keen interest in the flexible characteristic of the dialectic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past and present, truth and fiction embedded in the cinematic gaze. Her recent focus lies on discovering a poetic language to recover the wild in face of the global ecological crisis. [Three Circles with(in) a Whale] is a reconstruction of the first work of the [Archipelago Map] project, presented at last year's Ob/Scene Festival.

How much do we sense, contemplate, and react to the signals sent by the life and death of other existences? How can we open up the closed relationship we have been forming with them? How can we sustain our relationships by maintaining the tension that arises from differences, instead of disregarding or blurring such boundaries? To find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e time of whales and humans dive together into a circle, a space both filled and empty at the same time.

콘셉트·영상: 임고은

사운드: Post Industrial Boys(George Dzodzushvili), Marie Poland Fish

텍스트: John Banville, Jorge Luis Borges, Emily Dickinson, Robert

Graves, Ursula K. Le Guin, Herman Melville, Marianne Moore

위촉: 옴/신 페스티벌 2021

기술 프로듀서: 신진영(아파랏/어스)

무대: 심우섭

영상·조명: 정해인

음향: 장태순

Concept/Image: Im Go-Eun

Sound: Post Industrial Boys(George Dzodzushvili), Marie Poland Fish

Text: John Banville, Jorge Luis Borges, Emily Dickinson, Robert

Graves, Ursula K. Le Guin, Herman Melville, Marianne Moore

Commissioned by Ob/Scene Festival 2021

Technical Producer: Shin Jinyoung(apparat/us)

Stage: Sim Woosup

Video, Lighting: Jung Haein

Sound: Jang Taesoon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작품은 「당신이 살고 싶은」 프로젝트를 위해 옴/신이 위촉, 초청한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아르크 공공예술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Sponsored by Arts Council Korea

This artwork was invited by Ob/Scene for the project A Place You

Long For, and produced with support from Arts Council Korea.

Ob/Scene Space(Seochon Space Seoro)

Nov 10 Thu-12 Sat 11:00/12:00/13:00/14:00

/ 15:00/17:00/18:00/19:00/20:00/21:00 (16:00 break)

Nov 13 Sun 11:00/12:00/13:00/14:00/15:00

10,000 KRW / 50 min / English, Korean subtitle / visual performance

뉴 일루전

현대 연극을 대표하는 토시키 오카다는 최근 영상을 연극 공간으로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연극, ‘에이조 연극’을 창안한다. 에이조 연극의 첫 무대 작품인 「뉴 일루전」은 영상 속 배우의 이미지와, 현실의 무대가 중첩되고 관객의 상상을 터해 작동된다.

「뉴 일루전」에서 무대 위 스크린에 투영된 두 배우는 전달까지 그 극장에서 공연되었던 한 연극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거에 함께 살았던 방을 무대로 하는 연극에 대한 두 인물의 대화는 허구와 현실, 현재와 과거, 존재와 부재의 흐릿한 간극 속에 머물고, 가상과 실체는 서로를 잠식한다.

“배우들이 없는 무대 위에 에이조 연극의 이미지가 투영될 때 연극은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



© Courtesy of the artist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11.10.목 19:30/11.11.금 14:00, 16:30, 19:30

/11.12.토 11:00, 14:00, 17:00, 20:00/11.13.일 11:00, 14:00, 17:00

40,000원/60분/일본어, 영어·한국어 자막/영상 연극(에이조 시어터)

NEW ILLUSION

As a leading figure in contemporary theatre, Toshiki Okada Shimpei Yamada, a stage and video designer have developed a new type of theatre called 'EIZO-Theatre', in which he transforms the screen into a theatrical space. Eizo-Theatre presents 'theatre' by means of images of actors projected onto screens etc. and the audience's powers of imagination.

In [NEW ILLUSION], images of a man and a woman projected on a screen on the stage begin talking about a play that was performed in that theatre up until the preceding day, set in the room where they had lived together. While their conversation hovers over the blurry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fiction, present and past, existence and absence, the virtual and the real encroach on each other.

When the images of Eizo-Theatre are projected on a stage where actors are absent, how does theatre begin to operate?

SFAC theater QUAD

Nov 10 Thu 19:30 / Nov 11 Fri 14:00, 16:30, 19:30

/ Nov 12 Sat 11:00, 14:00, 17:00, 20:00 / Nov 13 Sat 11:00, 14:00, 17:00

40,000 KRW / 60 min / Japanese, Korean and English subtitle / Eizo-Theater

Playwright-Director: Toshiki Okada

Video Director: Shimpei Yamada

Cast: Tomomitsu Adachi, Ayana Shiibashi, 정중엽

Music: 장영규

Recording-Sound: Raku Nakahara(Luftzug)

Lighting: Masayoshi Takada(RYU), Kousue Ashidano(RYU)

Costume: Kyoko Fujitani(FAIFAI)

Stage Manager: Daijiro Kawakami, Marie Moriyama

Recording: Yuki Sato, OHSHIRO SOUND OFFICE Inc.

Video Assistant: Shiori Saito(AOZORA), Yuki Higuchi

Interpretation: Nawon Lee

Producer: Megumi Mizuno(precog)

Production Manager: Nanami Endo(precog)

Assistant Production Manager: Ema Murakami(precog)

Production Desk: Yuri Saito, Kumi Hiraoka(precog)

[For Seoul performance]

Lighting Operator: Arisa Nagasaka (RYU)

English Translation: Aya Ogawa

Korean Translation: Lee Hongyie

Planning and Production Management : precog co., LTD.

Support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 Government of Japan through the Japan Arts Council

In co-operation with KU Inc., office III's with the assistance of The Saison Foundation

협력 프로듀서: 강민형

제작: 첼피쉬, 가상정거장

공동 기획: 옴/신 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이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Production producer: Kang Min-hyung

Production: chelfitsch, Virtual Station

Co-presented by Ob/Scene Festival, SFAC theater QUAD

This work is produced by '2022 ACC (Asia Culture Center) International

Co-production Performing Arts Development Program'.

바다라는 평행우주

신선한 바나나에서부터 검고 찢뜩한 원유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없다. 바다는 우리로부터 차단된 세계다. 일반인이 가 볼 수 있는 바다는 해수욕장에 가서 잠시 몸을 담그는 레저와 소비의 바다다. 바다에 좀더 진지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스쿠바 다이빙을 하여 더 깊이 내려가 보지만 아무리 내려가도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은 찾을 수 없다. 해상운송의 현장인 항만은 보안구역으로 엄격히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알 수도 볼 수도 없다. 해상운송의 바다는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가 볼 수 없는 평행우주다. 인천항 1,2,3,4,5,6,7부두, 부산항 4,5,6,7,8부두와 신항만, 그리고 항만 주변의 해역이 그곳이다. 해상운송의 현장을 엿보고 구해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에 대한 얘기를 펼친다.



The Ocean the Parallel Universe

From fresh bananas to black and greasy crude oil, a major portion of our life depends on marine transportation. And yet, the process remains invisible to us. The ocean is a world blocked from our view. The ocean accessible to ordinary people is the ocean we swim in—the ocean of leisure time and consumption. Those who take the ocean more seriously practice scuba-diving and try to reach deeper water, but the gate to the ocean world remains beyond reach no matter how deep one dives. The port is always the most important site of marine transportation and yet, it is blocked off from the public because it is designated as a security zone. Thus, what happens inside a port will never be known to us. In this sense, the ocean of marine transportation is a parallel universe; we know it exists, but we can never reach it. Pier 1, 2, 3, 4, 5, 6, 7 of Incheon Port and Pier 4, 5, 6, 7, 8 of Busan Port, Newport, and its surrounding waters are examples of such a parallel universe. Based on materials gathered while peeking into the site of marine transportation, this work unfolds a story about the ocean we are unaware of.

연출·출연: 이영준

소리: 조승호

영상: 거제 로컬디자인 섭도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작품은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 공연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Direct and Perform: Lee Young Jun

Sound: Cho Seungho

Video: Geoje Localdesign Seomdo

Sponsored by Arts Council Korea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2 Private Theatre

Revitalization Program of Arts Council Korea.

Ob/Scene Space(Seochon Space Seoro)

Nov 14 Mon / Nov 15 Tue 19:30

20,000 KRW / 80 min / Korean / lecture performance

써야 할 곡이 없을 때, 그리고 다른 로마 이야기들

시각 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에릭 보틀레르의 신작은 세 개의 소재목이 붙은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네 개의 평평한 타이어들’과 ‘잃어버린 노래’, ‘써야 할 곡이 없을 때’라는 짧고, 독립된 이야기다. 이 모두는 1960년대 중반 로마에 정착한 미국의 아방가르드 사운드 아티스트 엘빈 쿠란이 ‘뮤지카 엘레트로니카 비바’라는 집단에서 창작한 작품들과 관계가 있다. 쿠란의 즉흥 연주에서 영감을 받은 보틀레르는 여기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발발한 급진적 투쟁들을 명치한다. 아카이브의 발견된 이미지, 사운드의 혼란한 조합은 역사적 혼란상 속에서 급진적 투쟁 행위로서 음악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 Courtesy of the artist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1.15 화 / 11.16 수 19:30

10,000원* / 59분 / 영어, 한국어 자막 / 영화

* 더블빌: 에릭 보틀레르 + 서현석

There is No More Music to Write, and Other Roman Stories

The new film from visual artist and filmmaker Eric Baudelaire has a long, unpredictable title and consists of three chapters. The three chapters each have the subtitles “Four Flat Tires”, “The Lost Score”, and “When There Is No More Music to Write”, and each is a fragmentary and independent story. All of these relate to works created by Alvin Curran, an American avant-garde sound artist who settled in Rome in the mid-1960s, in a group called “Musica Elettronica Viva”. Although they can be classified as a trilogy because of their different origins, Baudelaire, inspired by Curran’s improvisations, juxtaposes them with the radical struggles that arose in Italy and America in the 1960s and 1970s. The chaotic combination of archived and discovered images and sounds illuminates the significance of music as a radical act of struggle in a turbulent history.

Director: Eric Baudelaire

Based on research by Maxime Guitton

Main cast: Alvin Curran

Music: Alvin Curran, Musica Elettronica Viva

Image: Eric Baudelaire

Archives: Annabella Miscuglio

Editing: Claire Atherton

Sound mix: Eric Lesachet

Color grading: Christophe Bousquet

Producer: Eric Baudelaire–Poulet-Malassis Films

자막 제공: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Subtitle provided by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rt Sonje Center Art Hall

Nov 15 Tue / Nov 16 Wed 19:30

10,000 KRW* / 59 min / English, Korean subtitle / film

* Double-Bill: Eric Baudelaire + Seo Hyun-Suk

레스 폼레스

서현석의 「레스 폼레스」는 2019년 전시 『타이틀 매치: 미완의 폐허』에서 “아무 쓸모없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김홍석 작가의 의도에 대한 화답으로 시작되었다. 형태(form)가 없는 것들로 형식(form)을 만들 수 있을까? 주어 온 것들 사이의 긴장으로 형식을 벗어나는 비물질의 현현을 실험한다. 개념화될 수 없는 어떤 개별성. 비존재의 굴절.



© Courtesy of the artist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1.15 화 / 11.16 수 19:30

10,000 KRW* / 30-45분 / 한국어 / 영화

* 더블빌: 에릭 보틀레르 + 서현석

Less Formless

Seo Hyun-suk's [Less Formless] began as a response to Gim-hongsok's intention to create "artworks that are absolutely useless" for the exhibition 2019 『Title Match: Incomplete Ruins』. Can forms be created out of formless things? Through the tension created between found objects, this work experiments with the manifestation of the immaterial that escapes form. Individualities that cannot be conceptualized. The refractions of nonexistences.

Art Sonje Center Art Hall

Nov 15 Tue / Nov 16 Wed 19:30

10,000 KRW* / 35-40 min / Korean / film

* Double-Bill : Eric Baudelaire + Seo Hyun-Suk

리산시티, 알스트로에메리아, 아수아 형성기

「리산시티, 알스트로에메리아, 아수아 형성기」는 ‘커뮤(자작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영화 작업과 연계된 프로젝트이다. ‘커뮤’는 SNS 사용자가 설정한 자기 캐릭터를 주어진 세계관에 등장시켜 다른 사람들의 캐릭터와 소통하며 가상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작가는 ‘커뮤’에 모인 십대들이 공동으로 창작하는 이야기 속에서 낯선 서사 쓰기 방식을 발견한다. 참여자들이 이야기 조각을 이어 붙여가며 만들어내는 기묘하고 초현실적인 세계는 이들이 마주한 극단적인 고립감과 동시에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실패하는 소통의 흔적을 드러낸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탈주체적 공동의 글쓰기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의 프로토타입과 그 과정을 공유한다.



© Courtesy of the artist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11.18 금 19:30 / 11.19 토 16:00

20,000 KRW / 60분 / 한국어 / 스크리닝

In Production: Lysan City, Alstroemeria, and Asua

[In Production: Lysan City, Alstroemeria, and Asua] is a film project that began from “Commu”, a shortened term for the Self-made Character Community. “Commu” is an online community where each user creates one’s own character set in a virtual universe and develops a fictional narrative by interacting with other characters. The artist discovers a peculiar way of narrative writing in the collaborative creation process carried forth by the teenagers gathered in the “Commu.” The strange and surreal universe that evolves by patching story fragments written by each participant exposes the extreme sense of isolation felt by teenagers today, while leaving traces of their repeated attempts and failures of communication. This time the artist will present the making process and a prototype of this film project, which is currently being created through a collaborative writing process that blurs the notion of individual subjectivity.

기획·영상: 워킹아하

연출: 정재훈

연출팀: 김인범, 김서연

음악: 최태현

사운드이펙트: 박다함

프로듀서: 고유희

스토리 공동 창작: Natasha Vladlena, 강유진, 고유희, 김나연, 라슬빈, 심다하,

양규리, 양효리, 이새나, 이현빈, 임철민, 정재훈, 정찬석, 조현철, 최연진, 한서화

일러스트레이션: Natasha Vladlena, 강유진, 심다하, 오예린, 임철민, 조현철

2022년 서울문화재단 BENXT(비넥스트) 선정작

Production: walking aha

Direction: Jung Jae-hoon

Directon Team: Kim Inbeom, Kim Seoyeon

Music: Choi Taehyun

Sound Effect: Park Daham

Producer: Ko Yoohee

2022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BENXT

무제 & 블랙

메테 에드바센은 오슬로와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안무가, 퍼포머이다. 그는 영상, 책, 글쓰기 등 다른 매체와 형식을 탐구하지만, 결국 모든 형식을 관통하는 것은 실천과 상황으로서의 공연 예술이다. 이번 읍/신 페스티벌에서 소개할 두 작품 중 「블랙」은 언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까지 과정을 그린다면, 「무제」는 반대로 언어의 부정을 통해 존재를 다루며 존재와 인식을 향한 관객의 시각을 확장한다.

「블랙」은 침묵과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려는 안무가의 지속적인 시도이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에서 말과 움직임을 통해 비로소 세계는 모습을 드러낸다.

「무제」는 현실이 어떻게 언어에 내재하며, 실제 공간으로 확장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기억과 상상은 어떻게 흐려지고, 사물은 어떻게 존재하며 또한 동시에 사라질 수 있는지, 결국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자, 시대를 초월하여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 관한 것이다.



© Lilia Mestre

김희수아트센터 Space1

11.19 토 / 11.20 일 15:00

40,000원 / 40분 + 25분 / 영어, 한국어 자막 / 퍼포먼스

No Title & Black

Mette Edvardsen is a choreographer and performer based in Oslo and Brussels. Although some of her works explore other media or other formats, such as video, books, and writing, her interest is always in their relationship to the performing arts as a practice and a situation. At this year's Ob/Scene Festival, Edvardsen will present two works: [Black] and [No Title]. While [Black] is about making the invisible world visible through language, [No Title] addresses existence through negation, opening the perspective of the audience to encounter all there is when leaving behind that which is not.

[Black] is a constant effort to make invisible things appear in a silent, empty room. In void space, the world starts to slowly reveal itself through words and movement.

[No Title] is about how reality exists in language and how this extends into real space. It is about how memory and imagination blur, about how things can be there and gone at the same time, about things that have gone before their time and things that never quite disappear.

[No Title]

Created and performed by Mette Edvardsen

Production: Mette Edvardsen/Athome

Co-production: Kaaithheater(Brussels), BUDA/NEXT Festival(Kortrijk), Teaterhuset Avant Garden(Trondheim), BIT(Bergen), Black Box teater(Oslo)

Supported by Vlaamse Gemeenschap, Norsk Kulturråd

Special thanks to Heiko Gölzer, Mari Matre Larsen

Photo by Lilia Mestre

Graphic design: Michaël Bussaer

[Black]

Created and performed by Mette Edvardsen

Production: Mette Edvardsen/Athome

Co-produced by Black Box teater(Oslo), Work Space(Brussels)

In collaboration with Kaaithheater(Brussels), Vooruit(Gent), Netwerk(Aalst)

Supported by Norsk Kulturråd, Fond for Utøvende

Kunstnere,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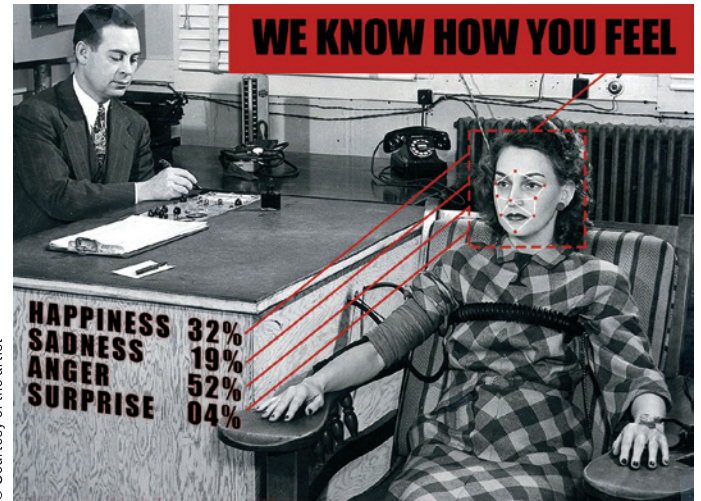
협력: 국립현대무용단

In cooperation with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트루 유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사며, 또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기술이 모두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인간의 ‘진실’은 감정에 담겨 있기에 이제 기술은 우리의 감정을 파악하려 한다. 음성 분석, 미세표정 분석, 뇌파 시각화 등은 인간의 신체로부터 진실을 읽는 감성 컴퓨팅(effective computing)의 여러 방법들이다.

「트루 유」는 이러한 기계들이 어떻게 진실의 성격 그 자체를 바꿔 놓는지 보여주는 확장 시네마 형식의 렉처 퍼포먼스다. 더블럭키 프로덕션은 스마트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고대 중국의 쌀집, 근대 거짓말 탐지기의 연장에 두고 신의 심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된 영화 클립, 최신 기술 예고편, 집에서 만든 앱의 도움을 빌어 더블럭키는 당신의 기분을 말해줄 것이다.



© Courtesy of the artist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1.19 토 19:30/11.20 일 18:00

40,000원 / 60분 / 영어, 한국어 자막 / 렉처 퍼포먼스

True You (we know how you feel)

The fact that machines know where we are, what we buy, and how many steps we have walked is yesterday's news. Today's machines want to know how we feel because our true self is revealed in our affects. Voice analysis, micro-expression evaluation, and brainwave visualization are the methods of affective computing that read the truth from the body.

[True You] is a lecture performance in the form of expanded cinema, that reveals how these machines transform the characteristics of truth itself. doublelucky productions place the development of smart software in the tradition of the ancient Chinese rice lie detectors to modern polygraphs, going back as far as the medieval judgment of God. With the help of old film clips, the latest tech trailers, and a homemade app, they'll tell you how you feel.

Concept-text-performance-video: Chris Kondek & Christiane Kühl

Music: Hannes Strobl

IT-data visualization: Kim Albrecht

Board operator: Phillip Hohenwarter

Thanks to Adam Butler

공동기획: 음/신 페스티벌, 아트선재센터

후원: 주한독일문화원

Co-presented by Ob/Scene Festival, Art Sonje Center

Supported by Goethe-Institut Korea

Art Sonje Center Art Hall

Nov 19 Sat 19:30 / Nov 20 Sun 18:00 + artist's talk

40,000 KRW / 60 min / English, Korean subtitle / lecture performance

산업, 그리고 그 대체 불가능한 매체들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제커리 폼왈트는 자본주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자본 자체는 재현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여, 영화와 사진 등의 재현 매체가 기능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다. 이번 음/신 페스티벌에서 소개하는 세 점의 작품은 일련의 현대적 장소들과 대체 불가능한 매체들을 통해 자본의 축적과 사진술의 발달 과정을 살피고 자본이 미적 경험에 제기하는 문제를 탐구한다.



© Courtesy of the artist

신작 [산업, 그리고 그 대체 불가능한 매체들]은 산업 자본주의가 추상화하고자 했던 매체의 역사를 소환하고 숨겨진 근원을 추적한다. 죽은 동물의 몸은 움직이는 이미지의 숨겨진 근원이다. 아날로그 필름은 도축된 소의 몸에서 유래한 젤라틴에 의해 유지된다. 필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보는 행위로부터 구조적으로 소외된 동물을 보는 것과 다르없다. 이미지 자체가 유예된 바로 그 매체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각지대로 우리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폼왈트는 육류 산업, 그리고 그 근간인 공산품과 공정 과정, 이를 끊임없이 감추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결국 우리를 이끈다. 만약 동물의 유골이 필름의 기원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대량 생산의 시초에 대한 위협으로 작동할 것이다. 소들이 필름의 결합 재료가 되기 위해 분해된 바로 그 도축장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 조립 라인을 발명하도록 영감을 준 곳이다.

신작과 더불어 [자본의 자리], [아크에 비추어]가 소개된다.

갤러리 기체

11.15 화-11.20 일 12:00-18:00

5,000원*/22분/영어, 한국어 자막/영상

* 전시 입장권: 제커리 폼왈트 + 호루이안

An Industry and Its Irreplaceable Medium

Zachary Formwalt is an artist and filmmaker. He is interested in how the media of representation—such as films or photography—func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it is impossible to truly represent abstract capital despite the profound impact capitalism has on our lives. Ob/Scene Festival will present three of his works this year, each visiting a series of contemporary sites. These works examine the accumulation of capital in parallel with the development of photography and explore the problems capital poses for aesthetic experience.

[An Industry and Its Irreplaceable Medium] This project has been generously supported by The University of Chicago's Richard, Mary L. Gray Center for Arts and Inquiry, and Ob/Scene Festival with additional funding from the Mondrian Fund.

[In Place of Capital] This work was generously supported by Kunsthalle Basel and the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In Light of the Arc] This work was originally produced for the steirischer herbst with support from the Mondriaan Fund.

KICHE

Nov 15 Tue–Nov 20 Sun 12:00–18:00

5,000 KRW* / 22 min / English, Korean subtitle / video

* Exhibition Admission: Ho Rui An + Zachary Formwalt

A new creation [An Industry, and Its Irreplaceable Medium], traces history of a medium that industrial capitalism tends to abstract and summons the hidden origin. What lies hidden at the origin of the moving image is the body of a dead animal. For analogue film is held together by gelatin, derived from the bodies of slaughtered cows. So whenever we look at film, we are effectively looking at an animal we are structurally exempt from seeing, since it constitutes the very medium in which the images themselves are suspended. By directing our attention to this blind spot, Formwalt simultaneously directs our attention to the blind spot of the meat industry, and finally capitalism at large, a system that persistently hides the industrial products and processes that remain at its base. If animal remains are found at the origin of film, they are equally there at the beginning of capitalist mass production: the very same slaughterhouses where cows were disassembled to become the bonding material of film, inspired Henry Ford to invent the automobile assembly line.

Along with the new work, [In Place of Capital] and [In Light of the Arc] will be introduced.

엔 리

티노 세갈은 “연출된 상황”(constructed situation)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방식을 통해 라이브 및 대화 형식의 예술 작품을 고안했다.

미술관에 자신을 일본 만화의 주인공, ‘엔 리’라고 소개하는 13세 실제 소녀가 등장한다. 그 소녀는 원래 버려졌던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필립 파레노와 피에르 위그가 구매해 2000년 필립 파레노의 영상 「세상 밖 어디든」에 아바타로 처음 등장했다가, 티노 세갈의 작품에서 실제 인물로 재탄생한 탄생하였다.

미술관에 등장한 엔 리와 관객은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 엔 리의 질문에 관객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작품은 공동 창작자가 되는 관객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 Philippe Parreno

에스더 쉬퍼 서울

11.4 금-11.20 일 12:00-18:00 (월요일 휴관)

무료/한국어·영어/라이브 워크, 영상

Ann Lee

Through what he calls “constructed situations,” Tino Sehgal has devised a strategy of a live and interactive art work.

At the gallery, a young girl introduces herself as a Japanese manga character, ‘Ann Lee’. This girl, originally a Japanese animation character then bought by Phillippe Parenno and Pierre Huyghe, first appeared in 2000 as an avatar in the film of Philippe Parreno titled [Anywhere Out of the World]. This time in Tino Sehgal’s work, she is reborn as a person in real life.

How does Ann Lee at the gallery interact with the visitors? How do they respond to her questions? The work enjoys the co-creation of the visitors.

작품 제공: 에스더 쉬퍼

Artworks provided by Esther Schipper

Esther Schipper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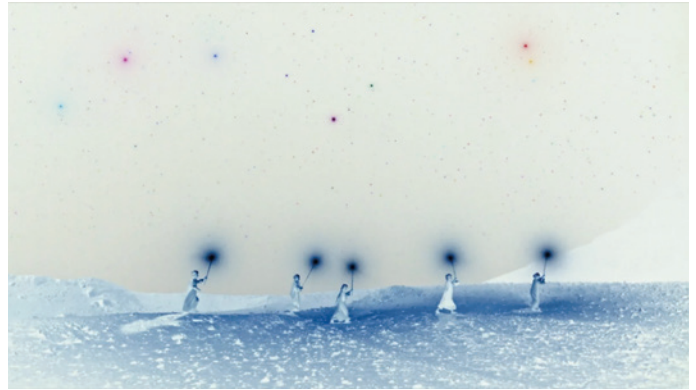
Nov 4 Fri–Nov 20 Sun 12:00–18:00 (closed on Mondays)

Free / Korean and English / live work, film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III

와엘 샤키는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다. 그는 허구와 실재가 혼재하는 이야기를 만들며 기존 역사를 질문하고 서사를 재구축한다. 특히 서구의 관점으로 고착된 아랍과 중동의 역사를 현대적 서술로 변안하며 사실로서 박제된 역사가 아닌 항상 새로이 쓰는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영상으로 그려낸다.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III]는 이집트 고대 유적 도시인 동명의 마을을 방문한 작가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그는 연금술과 영적 의식을 통해 선대의 보물을 발굴하던 주민들이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 형이상학적 체계를 이용하는 인간의 방식에 흥미를 느낀다. 와엘 샤키는 이 신비로운 경험 위에 모하메드 무스타갑의 소설 [해바라기]를 중첩하여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하는 몽환적인 영상으로 재탄생시킨다. 전통이 사라진 한 마을의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그리는 이 작품은 역사와 소설, 기록과 경험, 고고학과 상상을 직조하며 모순과 고통의 서사를 아름다운 서정시로 풀어낸다.



와엘 샤키 감독 ©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1.12 토 16:00

10,000원* / 27분 2초 / 한국어, 영어 자막 / 영화

* 더블빌: 월정명 + 와엘 샤키

Al Araba Al Madfuna III

Wael Shawky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emporary artists in the Middle East. With a focus on films, he has presented works with narratives where fact and fiction intermingle and existing historical narratives are questioned and reconstructed. The starting point of [Al Araba Al Madfuna III] is Shawky's personal experiences of visiting the ancient village of the same name. Having witnessed the locals dig the ground in search of hidden treasures and seek to unearth their ancestors' secrets through alchemy and spiritual activities, Shawky overlays this mysterious experience with the contents of "Sunflowers," written by Mohamed Mustagab, to reconstruct the narrative as a dreamlike film. This work portrays the dystopic world of a village where tradition has faded away, weaving together history and fiction, documentation and experience, archeology and imagination. [Al Araba Al Madfuna III] is a beautiful lyric poetry that unfolds the narrative of contradiction and pain.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

Collection of the Ulsan Art Museum

Art Sonje Center Art Hall

Nov 12 Sat 16:00

10,000 KRW* / 27 min 2 sec / Korean, English subtitle / film

* Double-Bill: Moonlit (work in progress) + Wael Shawky

월정명(月正明)

(work in progress)

‘기운생동’. 동양 회화에서 최고 이상으로 여겨지는 이 개념은 살아 있는 듯 생생하게 그리는 화법을 뜻한다. 현실을 더 현실처럼 구현하는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은 기운생동을 되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은 이미지 너머에 존재하는가? 디지털로 새로이 해석된 19세기 조희룡의 「홍백매」에 정가의 기운이 함세한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보기 어렵지 않지만, 물속의 달을 붙잡으려 하나 어찌 잡을 수 있으랴.”



© Courtesy of the artist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11.12 토 16:00

10,000원*/15분/한국어/퍼포먼스, 영상

* 더블빌: 월정명 + 와엘 샤키

Moonlit (work in progress)

‘Chi and Vitality’. Considered the beau ideal in Eastern painting, this concept refers to the style of painting vividly to make objects feel lifelike. If today’s technology allows reality to be rendered more realistically, could it also revive this ‘Chi and Vitality’? Or does this concept exist beyond the mere image? This time, the spirit of Jeongga is infused into a digital reinterpretation of the 19th-century painter Cho Heeryong’s [Red and White Apricot Trees].

“While it’s not difficult to see its reflection in the mirror, how could you possibly grab the moon in the water?”

음악: 박민희
 영상: 이이남
 사운드: 장영규
 Music: Park Minhee
 Video: Lee Lee Nam
 Sound: Jang Young Gyu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작품은 「당신이 살고 싶은」 프로젝트를 위해 옵/신이 위촉, 초청한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아르고 공공예술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Sponsored by Arts Council Korea
 This artwork was invited by Ob/Scene for the project A Place You
 Long For, and produced with support from Arts Council Korea.

Art Sonje Center Art Hall
 Nov 12 Sat 16:00

10,000 KRW* / 15 min / Korean / performance, video

* Double-Bill: Moonlit (work in progress) + Wael Shawky

「뒤영킨 데이터들의 정원」산책

오늘날 우리가 쏟아내는 디지털 데이터와 개인정보는 개인이 접근 불가능한 서버 팜(Server Farm)에 모여 제3자의 수익을 위해 이용된다.

「뒤영킨 데이터들의 정원」에서 데이터는 읽는 것이 아닌 심는 것이 된다. 방문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기증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교배되고, 꽃을 피우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지 관찰한다. 그 목적은 이윤이 아닌 아름다움이다. 개발자, 예술가, 그리고 내키는대로 사색하는 손님들이 모여 테크놀로지, 식물, 그리고 인간의 공존을 위한 대안적 생태계를 길러낸다.



© Courtesy of the artist

온라인

옴/신 페스티벌 웹사이트

10.30 일-11.20 일

오프라인

세운출

11.13 일-11.19 토 12:00-19:00

무료/독일어·한국어/인터랙티브 내러티브 웹사이트

A Scroll through The Garden of Tangled Data

Almost everyone carries a digital database in their pockets: fotos, chats, emails that don't gather dust and never decompose, existing forever on inaccessible server farms. This is different in [The Garden of Tangled Data]. Here, data is not read but sown. Visitors stroll/scroll through the site and upload pictures from their cell phones, and observe how they cross, blossom and eventually become humus in the digital community garden. doublelucky productions is planting an alternative ecosystem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echnology, plants and us. Vegetation has been measured and datafied long enough – now it's time to vegetize data.

Idea, concept: doublelucky productions

Text, voice: Christiane Kühl

Video, image processing: Chris Kondek

Composition, music: Hannes Strobl

Website design, programming: Laura Piccolo

Backend administration, second screen experience: Peter Ehse

Software development, postprocessing: Thomas Geissl

Hypercam design: Kim Albrecht

A commission by HAU Hebbel am Ufer.

Production: doublelucky productions and HAU Hebbel am Ufer (2021).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작품은 「당신이 살고 싶은」 프로젝트를 위해 옵/신이 위촉, 초청한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Sponsored by Arts Council Korea

This artwork was invited by Ob/Scene for the project A Place You

Long For, and produced with support from Arts Council Korea.

Online

Oct 30 Sun–Nov 20 Sun

Ob/Scene Festival Website (online)

Offline

Sewoon Hall

Nov 13 Sun–Nov 19 Sat 12:00–19:00

Free / German and Korean / interactive narrative website

진동세와 손편지

Vibrating Birds
and Handwritten Letter

[진동세와 손편지]는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의 열여섯 번째 전시이자, 디자이너 200여 명이 10초 씩 참여한 26분 길이의 비디오 작품인 한편, SF소설가 김초엽의 신작 소설이다. 그는 이번 작품을 위해 시간과 디자인을 주제로 신작 소설을 썼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 소설은 문장 단위로 나뉘어 참여자에게 무작위로 배포됐고, 참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장을 10초 길이의 타이포그래피 영상 또는 이미지 작품으로 출품했다. 제임스 웹(James Webb) 우주 망원경이 시간을 초월한 지금, [진동세와 손편지]는 ‘타이포그래피’와 ‘시간’을 다룬다.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는 문자와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발표하고 나누는 학술 단체다. 학술지 『글짜씨』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한편, 매년 다양한 형식의 타이포그래피 전시를 개최한다.

주최: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기획: 민구홍, 양지은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전시팀)

www.k-s-t.org/vibrating-birds-and-handwritten-letter

아트선재센터 (1층) / 예술청 프로젝트룸 (5층)

11.9 수-11.20 일 (월요일 휴관) 12:00-19:00

무료 / 26분 13초 / 영상

[Vibrating Birds and Handwritten Letter] is the 16th exhibition created by th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and a newly written novel by the SF writer Kim Choyeop, as well as a typography video work of 35 minutes created by 200 designers, who designed a sentence for every 10 seconds. Yet unpublished, sentences of this work have been randomly distributed to designers and were gathered back in the form of video clips and images. We live in an era when the James Webb Space Telescope has transcended time, [Vibrating Birds and Handwritten Letter] deals with ‘typography’ and ‘time.’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is an academic organization that shares the research results and experiments on typography and letters. It regularly publishes the academic journal 『Letter Seed』 and annually holds a typography exhibition in various formats.

Presented by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Curated by Min Guhong, Yang Jieun (KST exhibition team)

www.k-s-t.org/vibrating-birds-and-handwritten-letter

Art Sonje Center (1F) / Seoul Artists' Platform Project Room (5F)

Nov 9 Wed-Nov 20 Sun (closed on Mondays) 12:00-19:00

Free / 26 min 13 sec / video

미래 공동체를 생각하는 포럼 시리즈

[미래 공동체를 생각하는 포럼 시리즈]는 미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역학관계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포럼 시리즈다. 목포와 군산에서 지역활동가, 주민, 지역의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 및 외부 방문자 등과 함께 게임 형식의 포럼과 지역사회 행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관계에 관한 관점과 생각을 나누고 실험하고, 이어 서울에서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하며 포럼의 결과를 고찰한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비롯하여 포럼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지역 답사 및 인터뷰 등을 담은 영상 작품이 전시로 선보인다.

디렉터: 박경

큐레이터: 정소익

영상감독: 정재경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한다빈

목포 현장파트너: 홍동우((주)관찰아마을목포 대표) 문유진((주)관찰아마을목포 크루)

군산 현장연구가: 윤주선(충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채아람(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참여작가: 김월식(소셜 디자이너) 양선희(구트폼, 게임 & 그래픽 디자이너)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당신이 살고 싶은]을 위해 옴/신이 위촉, 초청한 프로젝트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아르크 공공예술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세운홀

포럼 11.13 일 10:00-21:00

전시 11.13 일-11.19 토 12:00-19:00

무료/포럼, 전시

Nomadic Forums for Future Communities

[Nomadic Forums for Future Communities] discusses the organisation of, and the dynamics constituting, the communities of the future. In Mokpo and Gunsan, CiViChon 2.0 holds community events and gamified forums with local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s and activists, along with visitors and external experts, in order to share their perspectives regarding the differing relationships within these communities; these forums are followed by in-depth discussions in Seoul to review the results. The accompanying exhibition will present video documentation (footage of the preparation process and scenes from each forum, as well as interviews and local excursions) alongside the game boards used in the forums.

Director: Park Kyong

Curator: Jung Soik

Film Director: Jung Jaekyung

Assistant Curator: Han Dabin

Local Partner: Hong Dongwoo(Don't worry village CEO),

Moon Yujin (Don't worry village Crew)

Local Researcher: Yoon Zoosun(Chungnam National Univ), Chae Ahram(AURI)

Social Designer: Kim Wolsik

Game & Graphic Designer: Yang Sunhee(Gute Form)

Sponsored by Arts Council Korea

This project was invited by Ob/Scene for 「A Place You Long For」,

and produced with support from Arts Council Korea.

Sewoon Hall

Forum 11.13 Sun 10:00-21:00

Exhibition Nov 13 Sun-Nov 19 Sat 12:00-19:00

Free/forum, exhibition

작가와와의 대화

ARTIST'S TALK

보슈라 위즈젠

11.6 일 14:00 [엘리펀트] 공연 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Bouchra Ouizguen

Nov 6 Sun 14:00
[Elephant] post-event
SFAC theater QUAD

마리아 하사비

11.6 일 17:00 [투게더] 공연 후
일민 미술관

Maria Hassabi

Nov 6 Sun 17:00
[TOGETHER] post-event
Ilmin Museum of Art

토시키 오카다

11.12 토 20:00 [뉴 일루전] 공연 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

Toshiki Okada

Nov 12 Sat 20:00
[NEW ILLUSION] post-event
SFAC theater QUAD

마텐 스팅베르크

11.13 일 19:30
[나는 이들 중 하나를 숨긴다] 공연 후
일민미술관

Mårten Spångberg

Nov 13 Sun 19:30
[I'm Hiding One Of These] post-event
Ilmin Museum of Art

재커리 폼왈트

11.16 수 17:00
갤러리 기체

Zachary Formwalt

Nov 16 Wed 17:00
KICHE

메테 에드바센

11.19 토 15:00
[무제]와 [블랙] 공연 후
김희수아트센터 Space 1

Mette Edvardsen

Nov 19 Sat 15:00
[No Title] and [Black] post-event
KIM HEE-SU Art Center Space1

더블럭키 프로덕션

11.20 일 18:00 [트루 유] 공연 후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doublelucky productions

Nov 20 Sun 18:00
[True You (we know how you
feel)] post-event
Art Sonje Center Art Hall

에릭 보들레르 (인터뷰 비디오)

온라인 공개

Eric Baudelaire: Interview Video

Online
Ob/scene Festival website & youtube

호루이안: 북 토크

11.4 금 18:00
더 북 소사이어티

Ho Rui An: Book Talk

Nov 4 Fri 18:00
The Book Society

옵/신 페스티벌 2022

주최·주관: 옵/신
협력 기관: 갤러리 기체,
국립현대무용단, 문래예술공장,
서촌공간 서로, 아트선재센터,
에스터 쉬퍼 서울
후원: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일민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한독일문화원

OB/SCENE FESTIVAL 2022

Organized by Ob/Scene Festival
In Cooperation with KIC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Seoul Art Space Mullae,
Seochon Space Seoro, Art Sonje
Center, Esther Shipper Seoul
Sponsor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lmin
Museum of Art, Japan Foundation
Seoul, Goethe-Institut Korea

옵/신 페스티벌 2022

예술감독: 김성희
사무국장: 조화연
운영 총괄: 정해민
프로듀서 총괄: 용선미
프로덕션: 유병진, 박유진, 구예나, 심은지
커뮤니케이션: 곽서영
티켓 및 웹사이트 운영: 손혜주

진행: 고윤지, 길경하, 김서희,
김하연, 박진혜, 배윤주, 서혜다,
석경목, 양나래, 이서연, 이선우,
이주현, 조안나, 최범규, 최소연
통·번역: 김신우, 이경후
그래픽 디자인: 슬기와 민
서브 디자인 : 이지현
웹사이트 제작·디자인:
민구홍 매뉴팩처링
기록물 촬영: 박수환

OB/SCENE FESTIVAL 2022

Artistic Director: Kim Seonghee
Secretary-general: Cho Hwayeon
Executive Manager: Jeong Hyemin
Head Producer: Yong Sunmi
Production: Yoo Byong-jin, Eugene
Hannah Park, Ku Yena, Shim Eun-ji
Communication: Kwak Seoyoung
Website-Ticket Manager: Sohn Hyeju

Coordination: Ko Yoonji, Kil Kyungha,
Kim Seohee, Kim Hayon,
Park Jinhye, Bae Yoonju, Seo
Heda, Seok Kyungmok, Yang
Narae, Lee Seoyeon, Lee Sunwoo,
Lee Juhyeon, Cho Anna,
Choi Bumkyu, Choi Soyeon
Translation: Kim Shinu,
Kathy Kyeonghoo Lee
Graphic Design: Sulki and Min
Sub Design: Lee Jiheon
Website Creation·Design: Min
Guhong Manufacturing
Documentation: Park Suhwan

기술팀: 아파라트/어스
기술 감독/프로듀서: 신진영
기술 협력 프로듀서: 김신재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한수민, 박미선
무대감독: 심우섭
조명감독: 공연화, 정해민
음향감독: 장태순
영상감독: 정해민
미디어 장비: 만리아트메이커스
무대: 김민중, 신상훈, 오재성
조명: 권하준, 김동현, 김민석,
김현, 맹우영, 박석진, 손민영,
손정은, 위남호, 이형진,
정연중, 정영우, 한가은
음향: 권태훈, 김승왕, 노익환,
유성식, 이태호
영상: 윤효영, 황종현
기술 번역: 이경후

Technical Team: apparat/us
Technical Director/Producer:
Shin Jinyoung
Technical Associate
Producer: Kim Shinjae
Technical Assistance: Han
Sumin, Park Miseon
Head of Stage: Sim Woosup
Head of Lighting: Kong
Younwha, Jeong Haein
Head of Sound: Jang Taesoon
Video Supervisor: Jeong Haein
Media Installation: Manri Art Makers
Stage: Kim Minjoong, Shin
Sanghoon, Oh Jaesung
Lighting: Gwon Hajun, Gim
Donghyeon, Kim MinSeok, Kim
Hyeon, Maeng Woo Young,
Park Seokjin, Son Minyoung,
Son JeongEun, Wi Namho, Lee
Hyeongjin, Jeong Yeonjong,
Jeong Yeongu, Han Gaeun
Sound: Kwon Taehun, Kim
Seungwang, Noh Ikhwon,
Yu Seongsik, Lee Taeho
Video: Yun Hyoyeong,
Hwang Jonghyeon
Technical Translation:
Kathy Kyeonghoo Lee

